

집, 정주와 변주의 공간

손희정*

1. 들어가면서
2. 21세기 대한민국, 장소상실의 시공간
3. 집,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된
4. 장소상실, 그리고 '노숙자-은둔형 외톨이 짝패 내러티브'
5. 집, 정주와 변주의 공간
6. 나가면서

국문요약

한국의 근대화 역시 서구의 근대화만큼이나 공간의 자본주의적인 재편 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간은 비어있고 차별성이 없으며, 기능적 효율성이나 경제적 제약, 또는 계획가나 개발가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한국의 주거 공간은 가부장제와 착종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각인된 '주거 기계'로서 등장한다. 그리고 개인은 이 과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면서 유의미한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의 상실인 '장소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장소상실'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사고함에 있어서, '장소상실'은 마치 탈정치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억압적인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며 동시에 자아의 편협한 경계를 허물고 공생공존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가능성으로서의 '장소상실'은 '박탈과 유기'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장소상실과 달리 오히려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애착 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 양쪽의 의미에서 '장소상실'은 '주거권 박탈'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등장한 한국영화에서의 '노숙자-은둔형 외톨이 짝패 내러티브'를 분석하고, 더불어 대안적 공간 개념인 헤테로토피아가 영화에서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주제어: 한국 근대화, 한국 근대 주거성, 장소상실, 무장소성, 가부장제, 헤테로토피아, 노숙자, 은둔형 외톨이, 쿼어 공동체, 시민권 운동, 여소시에이션)

* 중앙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면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 85호 노동자 김진숙의 현주소다. 그는 2011년 1월,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크레인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그의 굳은 결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찾아가고 감사 편지와 먹을 것을 보내는 주소가 바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타워크레인 85호'이며, 그곳이 그가 먹고, 자고, 생활을 하는 곳, 바로 집이다. 그러나 김진숙의 새로운 집은 하나의 돈보이는 예에 불과하다. 우리는 집이 될 수 없는 곳이 집이 되는 광경을 일상적으로 목격한다. 한 평 남짓의 고시원이, 국회 앞 길거리가, 사람이 들고 나는 서울역이, 시커멓게 타서 골격만 남은 예전의 상가 건물이, 누군가의 집이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집이어야 하는 곳이 집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다. 2011년 현재,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4%는 언론에 의해 '전세유민' '난민' '유랑민'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치솟는 전·월세에 쫓겨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있다. 한 칼럼은 지금의 상황을 전세 값이 폭등하면서 두 달 간 17명의 세입자가 자살했던 공포의 1990년도와 비교하기도 한다.¹⁾ 한국 주거 문제에 대한 르포 『어디사세요?』가 소개하고 있는 24년 간 여덟 번 이사를 했다는 “평생 세입자” 모상만씨(가명)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9%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마다 이사를 한다.²⁾ 이는 물론 고시원이나 쪽방촌, 비닐하우스를 전전하는 이들의 이사는 포함하지 않은 통계다.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가 되어 버린 집,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 버린 집. 그러나 자못 심각하게 들리는 이런 상황과 이로부터 비롯된 누적된 괴로움 역시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다.

1) 정구학, 「전세난 외면하는 복지 논쟁」, 『한국경제』, 2011.01.30.

2)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 『어디사세요?』, 사계절, 2010, 19-28쪽. 또 이 책이 인용하고 있는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마련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총 이사 횟수는 2~5회가 50.6%, 6~10회가 17.2%, 10회 이상이 6.1%에 달한다. '읍, 면, 동의 경계를 넘는 이사' 비율은 17.8%로, 일본 4.3%나 미국 11.5%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 『어디사세요?』, 사계절, 2010, 29-35쪽.)

우리는 집을 둘러싼 이런 미묘한 뒤틀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집이 될 수 없는 곳이 집이 되고, 집이어야 하는 곳은 집일 수 없는 비극의 원인은 어디에 놓여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대성의 촘촘한 망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의 복잡한 착종을 이해하고 이에 (비)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개인들의 문제 역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장소는 사회와 분리되어 이야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의 근대성을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판 위에 올려져있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보로메오 매듭이라고 이해한다.³⁾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주거 공간이 어떻게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으로 재편되었는가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장소를 상실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이 '장소상실'의 과정과 결과를 재현의 층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노숙자-은둔형 외톨이 짝꿍 내러티브'에 대한 분석은 그 소외의 과정과 성격을 설명하고, 더불어 이것이 이론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현실임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섹슈얼리티가 해방되는 시공간을 보여주는 <페스티벌>(이해영, 2010)을 분석하면서 이로부터 장소상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를 제안하려고 한다.

2. 21세기 대한민국, 장소상실의 시공간

한 사회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공간의 전환과 상호작용 안에서 진행된다. 전자본주의 체제가 장원제도로 설명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도시화, 세

3) 이 글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가라타니 고진의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는 보로메오의 매듭은 여기에 '가부장제'라는 제 4의 링을 더한 네 개의 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선배이자 동료 연구자인 심해경은 "오히려 가부장제의 판 위에 보로메오의 매듭이 올려져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동의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지만, 고진이 근대국가 논의에 있어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계(시장)화로 설명되는 것은 이런 공간의 재편이 시대의 재편과 서로 얽히고설켜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근대화 역시 서구의 근대화만큼이나 공간의 자본주의적인 재편 과정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풍수지리처럼 인간과 공간(자연)의 관계를 고려하는 공간 철학은 폐기되었고, 자연스럽게 혹은 의도적으로 "공간은 비어있고 차별성이 없으며, 기능적 효율성이나 경제적 제약, 또는 계획이나 개발가의 특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⁴⁾으로 이해되었다. 그야말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공간 구성에 있어 제 1의 판단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공간은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착취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공간이 착취의 대상이 되면서 발생한 복잡한 문제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 중 하나가 주거 공간이다. 이후 조금 더 자세히 살펴해보겠지만 '주택문제의 해결'은 근대적 공간 재편에 있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였다. 서울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 처참하게 파괴되었을 때에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공간의 불법적인 점거와 불량주택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덕분에 한국의 주거 공간 개발은 전적으로 국가 주도의 주택 정책에 의해 좌우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민간업체에 맡겨지면서 '자유시장 경쟁의 수사에 호소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담합구조'를 바탕으로 여전히 '국가 보조와 독점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⁵⁾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적 주거 공간의 구성은 대한민국이 건국 후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서구 자본주의화에 뿌리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거 공간의 구성이 '기본적으로 체제의 안정과 재생산과 관련하여

4) 에드워드 텔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65쪽.

5)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희망의 공간』, 한울아카데미, 2009, p.247. 하비는 미국 도시개발과 발전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토건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경향신문특별취재팀은 한국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에서 이 '건설담합구조'를 밝힌다. 건설재벌을 중심으로 관료집단, 정치인, 언론, 그리고 학자가 서로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는 주거정책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 『어디사세요?』, 사계절, 2010, 105-132쪽)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⁶⁾ 주택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주거 공간은 가부장제와 착종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각인된 '주거 기계'로서 등장하게 된다. 국가가 박애주의적 복지를 추구하면서 등장했던 주택 정책은 주거 공간을 핵가족 중심의 재생산 공간으로 재편해 갔고, 가족주의와 맞물리면서 개인과 집이 맺어야 할 건강한 관계는 확일적으로 결정되었다. 엄마는 집안을 건사하는 안주인으로서 '자신을 가꾸듯' 집을 가꾸는 혼연일체의 관계, 아빠는 정시에 출근하여 정시에 퇴근해 돌아와 지친 몸을 쉬면서 익일의 노동을 준비하는 관계, 아이들은 부모님이 가꾸어 온 집에서 건강한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적절한 때가 되면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 떠나야 하는 관계. 대략 이런 이미지가 개인과 집 사이의 '건강한 관계'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⁷⁾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근대적으로 공간이 재편되는 과정, 그리고 재편된 공간 자체는 그 안에서 공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개인은 또다시 공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인의 적극적인 개입은 상소소비나 투기 등의 형태로 드러났고, 이는 불행히도 교환가치로서의 집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유의미한 공간, 즉 '상소'로서의 '집'을 상실한다. 전일적인 근대화 과정의 결과이자 조건으로서의 '무장소성'⁸⁾은

6)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9, 122쪽.

7) 1970년대에 이미 "산업화된 사회에서 주거는 완전한 휴식과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핵가족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상적인 주택에 대한 꿈을 담은 '마이홈' '스위트홈'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지에서는 멋진 주택설계안들이 지면을 장식해 주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으며, 아름다운 집을 가꾸고 실내를 치장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30-231쪽) '건강한 관계'에 대한 강박은 사회의 가치관이 가장 보수적으로 반영되는 상품광고의 수십 년 역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최근 광고 중 대표적인 예는 한국 P&G 페브리즈 광고를 들 수 있다. 이 광고 시리즈에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 집을 '냄새 하나까지 깔끔하게' 관리하는 아내, 그리고 서로 사이가 적당히 좋은 남매가 등장하며, 여기에 개별 광고에 따라 시부모까지 등장해서 '대한민국의 건강 가족'을 보여준다. 이 때 '냄새' 뿐 아니라 '세균'까지 차단해주는 페브리즈는 외부의 모든 침입으로부터 '건강 가족'을 지키기 위한 주부의 필수용품이 된다.

개인의 장소상실을 더욱더 가속화시켰고, 장소상실의 경험 안에서 개인들은 다시 그 무장소성을 더욱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때 '장소상실'이란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 혹은 그런 유기적 관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⁹⁾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 속에 한국인의 존재론으로 등장한 '장소상실'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장소상실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역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설명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된 광장문화의 '등장'과 탈중심화된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인터넷 공간의 부상, 그리고 마포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소수자 유권자 연대 혹은 두리반의 공간점거 문화운동 등은 공간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공간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억압의 결과이자 그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전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공간적으로 사고함에 있어서 '장소상실'은 마치 탈정치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

8)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현상학적 관점에서 장소를 이해하면서 현대의 공간이 그 장소감과 장소성을 상실해 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렐프는 이런 특성을 '무장소성'이라고 설명한다. "무장소성은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기술하는 말이다."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290쪽.) 그러나 그는 이런 무장소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다. 현대 사회의 생활양식에서 무장소성은 불가피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 성찰하면서 기술산업시대에 걸맞는 장소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9) '장소상실'은 렐프의 위의 책의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원제인 "Place and Placelessness"가 "장소와 무장소성"이 아닌 "장소와 장소상실"로 번역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책 제목에 사용된 '장소상실'은 '무장소성'과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무장소성'은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공간 개발에 있어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인과 공간이 맺는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그 태도의 결과로 구성된 공간의 특성에 가깝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장소상실'은 공간의 구성보다는 개인의 존재론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일단은 공간으로부터 추방되었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공간을 유기하면서 '공간과 개인의 관계에 집중하는 개념인 '장소를 상실하고 부유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때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주거권 박탈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억압적인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하며, 자아의 편협한 경계를 허물고 공생공존의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용산 제 4구역 참사와 철거투쟁을 따라가고 있는 다큐멘터리 <용산 남일당 이야기>(오두희, 2010)¹⁰⁾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자본과 국가의 공모가 국민을 '예외상태'로 몰아넣는 순간을 폭로하면서 국민이되 국가의 법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철거민들의 계급 각성과 연대의 순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추방되었기 때문에 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을 둘러싼 역동적인 흐름을 보면서 고병권은 지금, 여기를 "추방과 탈주의 시대"¹¹⁾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장소상실'은 위에서 언급했던 장소상실과는 다소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가능성으로서의 '장소상실'은 '박탈과 유기'의 의미가 강조되었던 장소상실과 달리 오히려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애착 형성의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자와 후자, 양쪽의 의미에서 '장소상실'은 근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었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주거권 박탈'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장소상실'은 전일적인 근대화의 결과이자 조건인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의 상실, 자본주의적 가치 추구 아래에서 멀거벗은 생명으로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주거권 박탈의 상태, 그리고 공간과 맺는 유연한 관계의 가능성으로서 탈영토화라는 복잡한 결을 가진 개인의 존재양식이 된다. 따라서 21세기 대한민국의 주거성에 대한 기술은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에서 진행된 근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주거 공간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

10) 2009년 1월 20일 일어난 용산 참사 이후 경찰과 용역에 맞서 남일당 분향소를 지켰던 '용산 4상공 철대위' 23인의 여성들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 뼈대만 남은 건물에서, 시청 앞 거리에서, 그리고 생계의 터전이었던 가게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들은 결국 1년여 만에 장례를 치뤄내고, 투쟁에 참여했던 모두가 충분치는 않지만 공평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합의를 끌어낸다. 용산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나, 남일당에서 371일 간 계속되었던 그들의 투쟁은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탈주/투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11) 고병권, 『추방과 탈주』, 그린비, 2009.

및 구성원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3. 집,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된

가라타니 고진에 따르면 근대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라는 보로메오의 매듭의 형성 및 강화 속에서 도래했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근대화를 전자본주의적 경제에서 자본제경제로의 이행으로 이해하고 그런 하부구조의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과 달리, 고진은 '세계제국'이 근대 이전의 정치 경제적 형태이며 15, 16세기에 '세계경제'가 근대 세계 시스템으로서 그것을 대체했다고 보는 월레스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이를 발전시켜 자본과 네이션(국민 혹은 민족), 그리고 스테이트(국가)를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¹²⁾ '세계제국'에서 '세계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은 각국(의 왕)이 '제국'으로부터 자립하여 봉건적 제도(경제외적 강제)를 폐지하고 제국주의적 확장에 뛰어드는 과정이었으며 이것이 절대왕권의 수립과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왕의 주권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그 중 가장 빛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권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신하(subject)였던 개인은 주체(subject)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런 주체의 등장은 동등한 관계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하는 네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네이션은 "상품교환 경제가 주입했던 자유주의로 인해 해체된 국민을 묶어 공동체를 회복하고 국가와 시장사회를 매개하여 통합"하는, 실제로 힘을 행사하는 상상력이었다. 이렇게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보로메오의 매듭 안에서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 해체 불가능의 단위로 등극하게 된다.¹³⁾ 물론 이 과정에 국민 혹은 민족의 이름으로 호명된 개인들의 (비)자발

12)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2009, 13-29쪽.

13) 고진은 국가가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폭력'이 아니라 '수탈과 재분배'라는 교환관계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하지만, 카야노 도시히토는 애초에 그 '수탈은 '폭력'으로부터 가능해지고 또 한편으로 '폭력'의 독점'은 오직 효과적이 수탈에 있어서만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카야노 도시히토, 김은주 역, 『

적 복종이 존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된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시 독자적인 국민(혹은 민족)국가로서 세계경제로 편입해 가는 과정이었다. 경제발전 일변도의 근대화는 서구 자본주의화의 추구로 정리될 수 있었고, 이를 추동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을 통해 재벌을 키워감과 동시에 '단일민족의 신화에 기대어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내세웠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공산주의를 타자화하고, 역사 및 전통의 강조를 통해 남성 중심의 민족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은 민족주의 강화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작동했다. 여기에서 민족주의와 깊이 관계되는 가부장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가시화된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를 한편으로 자본주의(자본)=민족주의(네이션)=국가주의(스테이트)라는 이데올로기적 보로메오 매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민족주의에 노골적으로 착종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에 분리불가능하게 공존하고 있는 가부장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한국의 근대성은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

그런데 주거 공간은 이런 헤게모니 형성 과정에서 국민으로 호명된 개인들의 복종을 유도하고 고무하는 재현의 한 양식이었다.¹⁴⁾ 식민과 전쟁을 겪으면서 초토화가 된 한반도에서 주거 공간은 무엇보다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광복 후 해외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공산체제를

국가란 무엇인가, 산문, 2010.) 이 두 주장을 절충하는 것이 부의 축적과 국가, 그리고 국가가 독점한 합법적 폭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효하다. 특히 '복지의 개념'이 희박한 채로 북한'공산주의'라는 주적을 타자를 이용해 강력한 국민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탈과 재분배'보다는 '폭력의 독잡'이 더 유효한 관점이기도 하다.

- 14) "핵가족화하는 데도 아파트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1975년의 한 주부의 인터뷰는 아파트가 핵가족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핵가족화의 조건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아파트의 생활은 "가족 구성원의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의 인식론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전남일, 양세화, 형형옥,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37-38쪽.) 린다 맥도웰 역시 그의 책에서 "가내공간은 사회적 질서의 물리적 재현이며, 사회적 재생산은 주거지에서 재현되는 사회적 질서의 상징적 영속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이데올로기의 한 재현 양식으로서의 주거 공간을 지적하고 있다.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0, 135-136쪽.)

피해 남하한 사람들이 서울과 인천 등 도심을 중심으로 모여들었으며, 빈민구제사업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자 지방에 살던 사람들 역시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¹⁵⁾ 이런 인구의 도시집중은 한국 전쟁 직후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전쟁이 끝나자 월남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2배로 불어난 인구가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무단 점거가 늘어났고, 천변과 도심을 중심으로 불법 건물과 무허가 주택이 들어섰다.¹⁶⁾ 전후 국가 재건 사업을 통해 '부흥의 꿈'을 쫓던 이승만 정권에게 주택 문제는 성공적인 근대화와 현실적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골치 아픈 과제였던 것이다. 1960년대가 되고, 한국 사회가 근대화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자 인구의 이동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을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을 뿐 아니라 도시 외 지역의 저임금, 저급가 체계는 이촌향도를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가멸찬 산업화를 바탕으로 서구 선진화를 추구하던 한국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필연적인 결과이자 조건이었으며, 더욱 심각해진 주택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선결과제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의 대량공급에 목표를 둔 주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덕분에 1960년대 이후에 그야말로 '주거지역 확산의 시대'가 열린다.¹⁷⁾

1962년 최초의 단지 아파트인 마포 아파트가 건설되고 성공하면서, 아파트 건설은 "민간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여기저기서 붓물"이 터진다. 다른 산업 분야 육성에 주력했던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대한주택공사 사업 외에 주택 건설에 대한 공공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이 부족분을 민간 건설에 의존하게 된다.¹⁸⁾ 그러나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주택문제를 완전히

15)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서울의 경우에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간 연평균 5.9%의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1949년 당시 30만에 달하는 가구 수에 비해 주택 수는 19만 밖에 되지 않았고, 주택 보급률은 63%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52-156쪽.)

16)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66-167쪽.

17)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55쪽.

18)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02-203쪽.

자유시장경제에 던져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 사이에는 끊임 없는 상호작용이 존재했고, 이런 상호작용은 현재의 주택환경 및 토건재벌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된 강남 개발은 그 핵심 사례였다. 29개 지역에 면적이 약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 "아파트 공화국 시대가 강남에서부터 도래"¹⁹⁾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서민 위주로 건축되었던 이전의 아파트들과 달리 "대형 평수에 고급형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는 민간 건설업자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토건 세력 쏠아주기 일종이었다.²⁰⁾ 이런 고급 아파트의 등장은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계층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켰다.²¹⁾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70년대 초 반포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의 주택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선분양제' 역시 이 시기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등장했다.²²⁾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더 절박해졌고, 이런 절박함은 "무주택자들을 집단적 신경증세로 몰아넣"으면서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절도사건, 전세 가격의 폭등을 비판한 자살, 치솟는 전셋값에 대한 울화를 방화로 표출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초래했다. "그러나 공약과 달리 당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대부분 중산층 위주로 이뤄졌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책에는 여전히 소홀했다."²³⁾ 그리고 이런 상황은

19) 2007년 현재, 서울 아파트는 30.8%로 용도상 연면적이 가장 넓은 건축 유형이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 『어디사세요?』, 사계절, 2010, 165-166쪽).

20)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13쪽.

21)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의 공간 배치가 중산층 중심의 아파트 위주로 재편성 되는 과정에서 중산층 가구들이 자신들만의 내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주생활을 통한 계층간의 분리는 더욱 심화"되었다.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46쪽.

22)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59쪽. "선분양제는 원래 '분양가 규제'와 맞물려야 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 직후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분양가를 완전 자율화하면서 선분양제를 그대로 유지시켜 건설사들만 이중 삼중의 특혜를 누리는 기형적인 제도가 되었다." (경향신문 특별 취재팀, 『어디사세요?』, 사계절, 2010, 90쪽)

23)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258쪽.

지난 20년 간 점점 더 악화되어 왔다. 파행적인 주거 공간 재편 속에서 무주택자는 주거권을 요구할 수 없는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유주택자는 집을 교환가치로 이용하게 되면서 개인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표류가 시작되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사업 '시프트(Shift)'의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라는 홍보문구는 집을 둘러싼 다양한 욕망과 동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²⁴⁾

한편으로 이렇게 자본주의적 장소상실이 진행되는 와중에 '집'은 핵가족의 배타적인 재생산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960, 70년대의 대단한 규모의 인구 이동은 가족 제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촌향도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대가족은 분산되고 산업화를 통해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 증가²⁵⁾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의 인구조절 정책이 성공하면서 평균 출산율이 줄어들어 핵가족화가 크게 진전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주택 정책이 급변하는 가족제도에 발맞추어 핵가족 중심의 주거 공간 재편으로 이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는 더욱 각광 받는 주택의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²⁶⁾ 이렇게 핵가족 중심으로 주거 공간이 재편되어 가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남성은 공적 영역에, 여성은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면서 '남성/생산, 여성/재생산'이라는 성별 역할이 뚜렷하게 재분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 주체 중심으로 상상되었던 국민국가 정체성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근대화를 추동하는 생산력은 남성들의 몫이었고, 여성들은 현실적으로는 그 생산에 동참하

24) 믿기 힘든 통계이기는 하지만 2008년 당시 진보신당 국회의원 심상정의 보좌관이었던 손낙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1,08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2위 819채, 3위 577채, 4위 512채, 5위 476채 순이다. 2005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가 밝힌 '다주택 소유자 상위 100인 현황'을 보면 집부자 100인이 소유한 집은 모두 1만5464 채로 나타났다. (손낙구, "[손낙구의 부동산 1백대 부자] 통계로 보는 100대 집부자," 레디앙, 2008. 03.04.) 대한민국 10가구 중 4-5가구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하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착잡하다.

25) 김혜경·오숙희·신현옥, 「자본주의적 산업화와 한국가족의 역할 변화」, 《여성과 사회》, 3호, 1992. (윤택림,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원 지식마당, 2001, 58-59쪽에서 재인용.)

26) 전남일·양세화·형형옥,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36-37쪽.

면서도 언제나 돌봄 노동의 담당자로 주변화되었다. 식민과 전쟁을 겪으면서 남성의 '빈자리'를 '억척스러운 생명력'으로 매워 온 여성들은 신속하게 순종적이면서 남편과 아이의 생산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녀'로 국가 정책에 편입되고, 동시에 제도적 모성으로 포섭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생산과 재생산의 영역이 공존했던 주거 공간은 재생산 전담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재생산을 전담하게 된 여성의 영역으로 치환되었다.²⁷⁾ 이렇게 가부장제/자본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의 착종이라는 한국 근대성을 반영하

27) 이렇게 주택정책에 의해 주거 공간이 자본주의와의 착종 안에서 가부장제 가족주의 중심으로 재편된 예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유럽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자, 이의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크게 코뮌주의와 박애주의라는 두 줄기로 정리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사적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의 대안적 주거 공간을 고민했던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극심한 절대 빈곤을 해결하여 노동자계급을 포섭하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부르주아지의 체제 안정화 전략 중 하나로 기능했다. 그런데 박애주의자들이 이렇게 주택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공간을 재편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다른 '복지적' 차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위생 문제와 절대빈곤의 해결, 아이들의 보호가 그것들인데, 이는 "가족주의로 집약"되었고, "노동자의 생활을 가족으로 영토화하려는 것"이었다.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07, 213-230쪽.) 또한 이런 복지적 차원은 "여성을 점점 더 가정에 한정시키는데 이바지했다. 박애주의 운동으로 인해 여성은 여성 건강을 위해 거칠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0, 143쪽.) 주택사업이 노동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재생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공간 재편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포섭하는 이데올로기적 층위에서도 작동했다는 점에서 20세기 한국의 주택정책은 19세기 유럽의 주택정책과의 유사성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1950년대 미국의 교외 집합적 주거 공간에서도 발견된다. "공간적 접합인 교외의 커뮤니티는 핵가족 생활에 부합될 뿐 만 아니라 그 패턴을 재생산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놀이터, 마당, 학교, 교회, 유대교회당은 가족 형성의 비연속적인 단계마다 커뮤니티 참여를 위한 마을의 센터가 되었다. 노년층, 게이와 레즈비언, 노숙자, 미혼자, 유색인은 이러한 커뮤니티 공간 밖으로 밀려나 그 도시에서 내쫓겼다." (린 스피겔, 강미선 외 역, 『교외 가정의 동반자: 전후 미국의 텔레비전과 이웃 이념』, 베아트릭스 콜로미니 편저, 『섹슈얼리티와 공간』, 동녘, 2005, 235쪽.)

고 있는 주거기계로서의 주거 공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4. 장소상실, 그리고 '노숙자-은둔형 외톨이 짝패 내러티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부장제/자본주의/민족주의/국가주의가 착종된 근대성이 한국 주거성 형성에 깊이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다층적 의미에서 장소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IMF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로 정향하면서 주거의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죽음의 스펙타클로 가시화되자, 스크린에서도 이런 장소상실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독립영화 진영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과 철거, 주거상실은 최근 몇 년 간 가장 지배적인 이미지였다. 이런 이미지들은 이 사회의 억압과 폭력에 대한 폭로와 저항을 위해 소환되기도 하지만, 상실한 무엇인가에 대한 은유로도 끊임없이 차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상업영화에서 이런 장소상실의 감각이 다루어지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개봉한 <김씨 표류기>(이해준, 2009)와 <우리 집에 왜 왔니?>(황수아, 2009) 등은 노숙자와 은둔형 외톨이의 유대관계라는 공통된 소재를 선보이면서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진다. 무엇보다 노숙자와 은둔형 외톨이는 근대 한국이 설정했던 주거 공간과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개인들이다. 이런 설정을 통해 이 두 편의 영화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국 근대 주거성의 모순을 폭로하고, 그 모순에 어떻게 국가 폭력과 젠더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세심하게 묘사한다. 또 한편으로 이런 근대 주거성의 문제를 상업영화 문법 안에서 풀어내면서 장소상실이 내포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 맺음의 가능성과 그를 가능하게 해주는 테크놀로지의 충위를 재현한다. 이 두 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에서 다소간 추상적으로 설명되었던 개인의 존재론으로서의 장소상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강 다리 위에서 대출회사와 통화하는 남자 김씨. 그는 상환해야 할 빚

이 2억이 넘는다는 내용을 확인하자 "용기가 난다"는 말을 남기고 한강으로 뛰어든다. 그가 다시 눈을 뜬 곳은 어이없게도 63빌딩이 선명하게 보이는 한강 위의 무인도 밤섬. 죽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한 그는 63빌딩에서 떨어지기로 마음먹고 섬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핸드폰 배터리도 없고 수영도 못하는 마당에 섬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목이라도 매고 죽을까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그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무인도 생활을 즐겨보기로 마음먹는다. 남자 김씨가 밤섬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동안 여자 김씨는 자기의 조그맣지만 거대한 방에서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잠은 옷장에서, 기상은 아버지가 출근한 다음인 8시, 그리고 기상 후엔 컴퓨터를 켜고 가상의 세계로 '출근'한다. 온라인에 접속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자기만의 세계에서 은둔하는 외톨이 김씨가 아닌 화려한 삶을 누리는 '돌로레스'가 된다. 그러던 중 1년에 두 번 그가 대낮에 서울 도심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시간인 민방위 날이 찾아온다. 설레는 마음으로 텅 빈 도시를 둘러보던 그는 집 앞 한강 위에 떠 있는 섬에서 기묘한 메시지를 발견한다. "HELP." 바로 남자 김씨가 밤섬 물가에 적어놓은 S.O.S 요청 메시지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찰하고 관찰 당하는 관계가 시작된다.

어렸을 때부터 '튀든 남들처럼 잘 해야 한다'는 강요에 떠밀리려 살아온 남자 김씨는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구조조정을 당했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애인에게 차였으며, '쇼팽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대출의 늪에 빠져 결국 무인도에 이르게 된, 평범한 일인이다. 그가 여기까지 내몰리게 된 삶을 짧게 보여주는 '수영장 시퀀스'는 거칠게 요약된 대한민국의 근대사이기도 하다. 열심히 남들(서구 선진사회)처럼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온 국민이 빚쟁이로 몰락하는 IMF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신자유주의와 고도의 신용사회의 정향은 끝없는 (자살이건 타살이건 혹은 은유적인 의미이건) 살인의 스펙터클로 이어졌다. 김씨가 사회의 주변부로 몰렸지만 목을 매는 와중에도 민방위 사이렌을 들으면 "훈련이 끝나고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를 만든 8할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이 장면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근대 국가의 권력을 상기시킨다. 사이렌 소리가 공간의 틈새까지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고 뻑뻑하게 채우듯 국가는 그 권력과 지배 장치를

개개인의 일상에까지 침투시키지만 정작 죽음을 생각하는 구성원을 구해주지는 않는다. 그야말로 '살리면서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인 셈이다. 애초에 국가는 구성원에게 주권을 위임 받아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갈취를 더욱 용이하게 해 가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제도적 발명이었다는 것은²⁸⁾은 이 짧은 순간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김씨를 살린 것은 국민으로 그를 호명하는 국가가 아니라 배설하고 먹어야만 하는 가장 인간적인 욕구다.

그렇게 살아난 김씨는 30여 년 간의 표류 끝에 드디어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기 시작한다. 난과한 오리배로 "연이자 6% 주택청약적금 7년 만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이어서 짜파게티를 만들어 먹겠다는 일념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은 땅은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 불가능한 자급자족의 주거 공간으로 거듭난다. 그 안에서는 김씨가 국민임을 증명해 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신중 빅브라더인 신용카드 역시 그저 씨앗 마련을 위해 새똥을 긁을 때나 쓸모가 있는 단순 연장으로 '전략'한다. 밤섬은 김씨에게 있어서만은 신대륙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의 밤섬은 철저하게 국가권력에 포섭되어 있는 국토이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 다음 날, 재난 자본주의를 떠올리게 하듯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의 파라다이스에는 관리 단속을 위한 공권력이 투입된다. 태풍의 여파로 '생태

28) 카야노 도시히토는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폭력의 독점을 불러왔고, 그렇게 독점된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국민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도시히토는 "국가를 포함한 정치단체는 어째서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즉 부의 축적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상대의 수중에 있는 부를 빼앗기 위해서 혹은 내 수중에 있는 부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폭력처럼 간편하고 분명한 수단은 없다. 만약 폭력이 지배와 복종의 수단이라면 오히려 반발과 같은 부작용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부의 강탈과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면 그 효과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때 "국민국가란 국가의 폭력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카야노 도시히토, 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논, 2010.) 위에서 언급했던 철거와 재개발 문제를 논하는 모든 다큐멘터리, 즉 현실적 기록이 보여주듯이 공권력은 단 한번도 국민의 편을 들었던 적이 없었고 언제나 자본의 편이었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공권력의 모순은 이런 국가와 폭력, 그리고 부의 축적의 근본적인 관계가 폭로되는 순간 선명하게 설명된다.

보전구역'인 밤섬에 쓰레기가 쌓이자 공익근무요원과 해병대가 '한강정화작업'을 위해 밤섬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한민국 국경이라는 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땅은 전부 사적으로 소유되거나 공적으로 소유, 관리되고, 국가에 의해 인증 받지 않은 상태로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거'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공간과 관계를 맺고 그곳을 장소화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씨의 경우도 예외일 리 없다. 게다가 국가와 자본의 테두리 밖에서 생활해 온 김씨의 권리가 보호될 리도 만무하다. '자살 시도'라는 적극적인 국적 탈퇴 행위는 무인도에서의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졌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순간에는 그 자발적 탈퇴 역시 수용되지 않는다. "여기 그냥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하고 나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저항해도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그는 해병대에게 한 대 얻어맞고 밤섬으로부터 질질 끌려 나온다. 물론 '국민'이 공권력에 대항할 때 폭력을 불사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광경이다. 아무리 "내 땅"이라고 절규해봐도 그들에게 김씨는 불법으로 공간을 점거하고 있는 "노숙자"일 뿐인 것이다. 국가와 자본의 개입이 미치지 않는 기묘한 진공의 공간 밤섬에서 겨우 겨우 일궈낸 자신의 집을 빼앗긴 김씨는 마지막 선택지일 수밖에 없는 63빌딩으로 향한다. 씨앗 모을 때나 썼던 신용카드를 버스 요금단말기에 대는 순간 들려오는 전자음은 그가 국가=자본의 구성원으로 강제 편입되는 순간을 선명하게 각인시킨다.

그런데 '구조 조정과 무능으로 인한 실연'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김씨는 생산력의 결핍으로 인해 표류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여자 김씨가 이마의 상처로 상징되는 소수자성 때문에 집안으로 유폐되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이유이다. 우리는 몇 편의 영화를 비교해 보면서 남자 김씨와 여자 김씨 사이에 존재하는 젠더의 차이가 어떻게 '집과의 건강한 관계 상실 재현'에 반영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반가운 살인자>(김동욱, 2010)의 주인공 김영석은 사업이 망하고 오랫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가족이 그를 달가워 할 리 없다. 차라리 죽었다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텐데, 버젓이 살아 돌아와 매일 빈둥거리고 있으니 생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이다. 딸과 아내에게 구박을 받던 그는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

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때 마침 동네에서는 여성만을 노리는 연쇄살인이 벌어지고 있던 참이다. 영화는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 정민과 무슨 이유에서인지 범인을 추적하는 무능한 가장 영석 사이에 일어나는 좌충우돌을 따라가고, 영화의 끝에 영석은 여장을 한 채로 정민에게 붙들리게 된다. 보험금을 받아 가족에게 남겨주기 위해 자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어야만 했던 영석은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되기 위해서 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가 선호하는 여자 스타일을 연구했던 것이다. 이 시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장은, 즉 '건강한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남성은 (그가 트랜스메스티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장을 통해 남성으로서의 젠더를 박탈당한 채 거리로 내몰려야 한다. 이와 연관되는 맥락 속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편의 텍스트는 <로드무비>(김인식, 2002)다. <로드무비>에서 대식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동성애자인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할 수 없어 집을 나온다. 버려두고 나온 아내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그로 하여금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게 하고, 강인한 생활력(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자기 파괴적인 노숙 생활로 스스로를 방기하게 된다. 대식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석원은 주식이 급락하면서 완전히 몰락해 버린 가장이다.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대식이 살려내면서 두 사람은 함께 노숙생활을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혹은 성적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부장의 요건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즉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생산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길거리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방의 끝에 대식은 결국 목숨을 잃는다.

그렇다면 여성이 거리에서 표류하고 남성이 집안으로 스스로를 유기한 <우리 집에 왜 왔나?>는 어떨까. 같은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김씨의 노숙 생활과 이수강의 노숙 생활에 대한 묘사의 차이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남성이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는 남자 김씨처럼 생산과 재생산이 공존하는 자신의 유토피아를 잠시나마 구축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이 집 밖으로 쫓겨났을 때에는 이수강처럼 완벽한 노숙자가 되어 은둔형 외톨이 남성이 숨어 있는 집에 기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집에 왜 왔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장소상실을 구성하는 사회적이고 문

화적인 맥락이다. 장소상실은 비단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로드 무비>의 대식의 경우처럼 가부장제 가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배제²⁹⁾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집에 왜 왔니?>는 이 문제를 재현하고 있다.

노숙자인 수강은 속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족도 없이 산 중턱에서 혼자 살았던 탓에 마을에서는 '동네 대표 미친년'이자 매독 보유자이며 '창녀'로 통한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열세살 지민뿐이고, 스무살 수강은 그런 그에게 폭 빠진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지민에게 '동네 미친년'과의 스캔들이 달가울 리 없다. 결국 지민은 이사를 가고 수강은 자신을 떠난 지민을 찾아 유랑의 길에 오른다. 속초에서 춘천으로, 춘천에서 서울로 돈도 없고 뺨도 없으며 교육도 못 받은 여성이 혼자 자립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도둑질에서 각종 아르바이트, 성매매, 파지 줍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곳곳을 전전하며 수강은 셀 수 없이 많은 일에 몸을 담는다. 결국 (나름으로는) 자발적이었던 유랑은 표류가 되었고, 표류는 서울의 거리로 그를 이끌었다. 그 어느 곳도 그의 집이지만, 그 어느 곳도 그의 집이 아닌 그런 상태. 그리고 자신을 그런 처지로 만든 재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수강은 재민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집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선 사고로 아내를 잃고, 재개발 불발로 재산마저 잃으면서 대인관계 기피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 병희가 목을 매달고 있다. 수강의 표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주의에 사로잡힌 사회가 소수자에게 꼬리표를 달아 소외시키는 폭력을 그 전제로 하며, 동시에 그런 소수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배제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고통을 재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29) "한국도시연구소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빈곤의 영역을 주거차원, 고용/취업차원, 교육차원, 건강차원, 사회적 관계차원, 물질적 영역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최선미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권리가 인위적으로 억압되어져 있는 경우로 보고, 배제의 유형을 심리적 배제, 경제적 배제, 정치적 배제로 구분하고 있다." (이정봉, 「빈곤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시 빈민층의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61-62쪽.)

<김씨 표류기>와 <우리 집에 왜 왔니?>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주거 공간에 행사하는 영향력과 폭력, 그리고 그 영향력과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마찬가지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부장제의 폭력을 드러내고 있는 텍스트인 셈이다.

그런데 왜 노숙자와 은둔형 외톨이인가? '빈집'을 떠돌면서 타인과 일상을 공유하고 그를 통해 상상의 가족을 만드는데 심취한 태석과 가부장의 폭력 속에서 집안에 유폐되어 있는 선화의 이상한 만남을 그리고 있는 <빈집>(김기덕, 2004)이라는 텍스트까지 생각해 보면, 노숙자와 은둔형 외톨이 사이의 만남에 누군가는 매혹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 만남은 생산력 혹은 재생산력의 결핍으로 지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집과의 건강한 관계'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필연적인 만남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획일적인 규정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연대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일 지도 모른다. <김씨 표류기>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경제계급을 대면하게 된 남자 김씨와 소수자라는 사회적 계급으로 인해 방으로 유폐된 여자 김씨의 만남은 다중다양한 계급적 각성을 가능하게 하는 '추방'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만남이었기에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마지막 장면은 '탈주'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종된 방식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은 흥미롭다.

여자 김씨가 남자 김씨를 처음 발견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서다. 남자 김씨는 'HELP'라는 코멘트가 달린, 나무에 목을 매는 스틸에 가까운 이미지로 여자 김씨에게 소개된다. 어떻게 보면 남자 김씨가 꾸며가는 그만의 주거 공간 탐색은 현실성이 탈각된 인터넷의 가상공간과 흡사하고, 여자 김씨가 그를 들여다보는 뷰파인더는 모니터와 같다. 온라인의 가상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한 여자 김씨에게 남자 김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또 다른 가상공간과의 접속이나 마찬가지로다. 여자 김씨는 "HELP"를 "HELLO"라고 고쳐 쓴 남자 김씨의 메시지에 "리플을 달아주기로" 결심하고 다소간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체인 유리병을 활용해 남자 김씨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HELLO." 여자 김씨가 남자 김씨에게 리플을 다는 순간, 이들의 관계는 단순히 관찰하고 관찰되어지는 관계에서 서로 '리플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된다.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남자 김씨가 삶으로 들어오면서 여자 김씨의 현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남자 김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여자 김씨는 문턱을 넘어 외출을 감행하기도 하고, 남자 김씨처럼 옥수수를 키우고 싶어서 "옥수수를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좀 사 달라"고 엄마에게 직접 말을 걸기도 한다. 옷장에서 나와 잠을 자는 날들이 생기고, 미니홈피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핏수 역시 조금씩 줄어든다. <우리 집에 왜 왔니?>의 이수강이 그렇게 욕망하는 것처럼 "나를 봐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 짜파게티의 '희망소비자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를 통해서나 찾을 수 있었던 '희망'은 자장면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희망'이 되어 두 사람에게 돌아온다. 결국 남자 김씨가 그에게는 유토피아(무장소)였고 여자 김씨에게는 가상의 세계였던 밤섬에서 쫓겨나자 여자 김씨는 그를 만나기 위해 집에서 뛰쳐나간다. 그리고 영화는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끝난다. 물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남자 김씨의 장소상실과 여자 김씨의 장소상실의 서로 다른 층위가 겹쳐졌을 때, 추방당한 '내부 난민'의 연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다.

5. 집, 정주와 변주의 공간

이렇게 남자 김씨와 여자 김씨의 만남, 수강과 병희의 만남, 대식과 석원의 만남 등은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재생산 관계에 포섭되지 않으므로써 자신들의 장소에서 '추방'당한 이들의 '탈주'이며 그 탈주 속에서나 가능한 '연대'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연대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해피엔딩도 아니며, 심지어 사회에 조금의 균열도 내지 못했지만, 그들은 어떤 해방의 순간들을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이런 '해방의 순간'을 목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장소상실이 해소될 먼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추방'의 경험을 통해 비로서 '탈주'하면서, 구조화되어 있는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국가질서에 대항하는 주체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은 아닐까. 탈주는 인식론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며 언젠가는 재영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많은 경우 탈주는 '저항의 실패'로 결론난다. 이런 끝없는 재영토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대안을 말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을 통한 혁명과 해방의 순간을 말하는 것 역시 지나치게 테크노토피아적인 전망에 사로잡혀 있다. 2009년의 촛불과 같은 현실에서의 폭발적인 탈주는 인터넷에서의 '미디어이션(mediation, 매개)'이 '아-미디어이션(im-mediation, 즉각적인 직접행동)'³⁰⁾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 양쪽에서 진행되는 탈주는 '공조이기를 넘어 사실상 '하나'이다. 그렇게 인터넷 및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혁명들을 가능하게 했던 다른 오프 상의 매체들보다 속도를 빠르게 한 것 이상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³¹⁾ 실제로 우리는 '탈중심화된 소통'의 상상 속에서도 현실의 폭력적인 이데올로기가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을 매일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탈주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무의미하다"는 폄훼에 놓여있지 않다. 탈주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다양한 논의들이 이미 평가했던 것처럼 유의미하며, 때로는 벤야민이 말한 '신적 폭력'의 어떤 해방적 모멘트를 제공해 왔다. 우리의 질문은 오히려 이런 해방의 모멘트를 지속시키는, 지속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어떻게 상상해 갈 것인가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무장소성'을 담보하는 유토피아적 전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회복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대두된다. 물론 궁극

30) 고병권, 『추방과 탈주』, 그린비, 2009, 80쪽.

31) 종교혁명의 배경이 인쇄술의 혁명이 놓여있었듯이, 역사적 혁명의 순간에는 언제나 그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들이 있었다. 인터넷 매체는 그 매체들과 어떤 변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장하준은 그의 책에서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는 선정적인 제목 아래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맹신을 비판한다. 그는 "전보의 발명으로 인해 대서양을 건너 소식을 전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2주일에서 7~8분으로 줄었으니 2,500배가 넘게 빨라진 셈"이라면서 "인터넷은 팩스 전송 속도보다 겨우 5배 단축시켰다"고 지적한다. (장하준, 김화정·안세민 역,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57-68쪽)

적인 장소회복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논리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공간을 탈구축함으로써 가능해 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미션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인식 전환의 모멘트, 그 인식전환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적 보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단계. 고병권이 진지하게 논의했던 '추방과 탈주'가 인식전환의 가능성이 열리는 '메시아적 모멘트'로 이야기될 수 있는 단계라면 본고는 그와 더불어서, 그 단계를 현실적으로 지속시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푸코가 주장했던 공간의 미시정치학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가 제시했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 역시 유의미하다. 헤테로토피아는 '고정시키는 일련의 관계들을 의심하고, 그를 중성화하거나, 혹은 전복시키는' 공간으로, 장소의 헤게모니적 조건들을 전복하는 현실에 존재하는 장소다. 푸코에 따르면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어떤 단일문화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안에 다양한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하지만 크게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청소년기나 생리 기간처럼 위기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지정된 공간 혹은 신성한 공간으로, 기숙사를 예로 들 수 있다. 후자는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을 행하는 이들을 위한 곳으로 '정신병원'을 그 예로 설명한다.³²⁾ 그런데 최근 개봉했던 한 영화에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를 흥미롭게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 있다. 바로 이해영의 <페스티벌>이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마포는 성

32) Foucault, Michel, "Of Other Spaces," 1967.

(<http://foucault.info/documents/heteroTopia/foucault.heteroTopia.en.html>) 푸코는 이를 헤테로토피아의 첫번째 성격으로 규정하면서 이어서 네 가지 성격을 덧붙인다. 둘째, 헤테로토피아는 그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장소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푸코는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계속 변해 온 묘지를 그 예로 설명한다. 셋째, 그 자체로는 공존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가 공존하는 한 장소로, 전 세계에서 온 다양각색의 식물이 공존하는 정원 역시 헤테로토피아로 설명된다. 넷째, 다양한 시간을 한 장소에 모아놓은 공간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마지막으로 헤테로토피아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공간이다. 공공장소와 달리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닫힌 공간이지만, 사우나처럼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과정 후에는 들어갈 수 있다.

정체성의 찾아가는 이들의 공간이란 점에서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이자 한국의 성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판타지 공간을 구축하면서 현실로부터 탈각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당히 주거권을 요구하는 현실적인 능동성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페스티벌>의 마포 재현은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페스티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는 마포 경찰서에서 시작된다. "정확한 단속 대상이 누구냐?"는 말단 경찰관의 질문에 서장은 "안전하지 않은 거, 무질서하고 그런 거. 건전하지 않은 거, 불건전하고 막 그런 거"라고 대답하지만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체로 "무질서하고 불건전한 막 그런 거"는 "유흥기"나 "자기 차에서 딸 치는 남자," '한국 남자의 성생활을 위협하는 백인 남자'와 같이 성(性)을 둘러싼 문제로 좁혀진다. 지나치게 많이 이야기 되면서도 근대의 배치 속에서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내몰렸고, 동시에 끊임없는 단속의 대상이 되어 왔던 성의 역사를 <페스티벌>은 우스꽝스럽지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근대화에서도 성은 가부장제와의 관계 및 인구 관리의 차원에서 중요한 관리 및 단속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서울시 (성)정화사업을 벌이는 와중에도 마포의 곳곳에서는 '무질서하고 불건전한 막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SM에 빠진 한복집 이줌마와 철물점 아저씨, 예쁜 여자 속옷을 즐겨 입는 고등학교 남선생님, 섹스돌에 폭 빠진 오뎅 총각, "왕년에 자지들"이었다는 허세 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경찰관, 사체를 갖기 위해 자기 속옷을 팔아야 하는 여고생. 사회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들이 북닥거리며 마포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마포의 한 근린공원에서 이 "변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변태들의 합창' 시퀀스의 끝에 한복집 이줌마 순심은 개인의 성을 단속하고 사회가 '비정상'이라는 딱지를 붙인 성주체들을 추방하려는 공권력에 대해 "변태는 주민이 아니냐"고 일갈한다. 또한 그는 "엄마라는 사람이 변태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딸의 말에 "살다보면 변태 엄마도 있는

거야"라는 대답을 남기고 '변태 복장'으로 길거리로 나선다. 공적인 공간에 당당히 서서 내뱉는 "지옥 가자, 기봉야"라는 그의 마지막 대사는 근대 국가의 단속 대상이었던 '비정상 성'의 해방에 대한 당당한 요구이자, 신성한 것으로서 언제나 박제되어 왔던 모성의 해방을 알리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때 헤게모니적 조건을 전복하는 현실적 공간, 헤테로토피아로서의 마포가 등장한다.

한국에서의 주거 공간은 지속적으로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가 강요해 온 '정상적인 성'의 담론에 간혀있었고, 그와 함께 한국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근대성을 훈육하는 재현물로서 기능해 왔다. 이런 주거 공간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착종의 반영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페스티발>에서 재현하고 있는 마포의 주거 공간, 즉 변태들의 집은 이런 변태성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런 주거 공간의 확장된 공간이 마포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이 영화의 '변태'들이 한국의 성소수자들을 상징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마포의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집은 다양한 계급의 소수자들이 '주민이자 시민'으로서 주거권을 요구하며 정주하는 공간이자, 그 정주의 조건들을 조정하고 변화시켜 가는 변주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6. 나가면서

이 글은 한국의 근대성을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판 위에 올려져있는 자본=네이션=스테이트의 보로메오의 매듭이라고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으로 재편된 주거 공간이 장소상실이라는 존재론으로 이어지게 된 과정을 추적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스크린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 근대 주거성의 재현을 분석함으로써 지금 여기를 진단하고,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를 상상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헤테로토피아의 영화적 재현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와 관념적 허상으로서의 유토피아 사이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페스티벌>의 마포처럼, 당당히 정주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주거 공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소수자 공간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 공간 마포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같음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마포는 새로운 공간 운동이 대두된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건설담합구조를 문제시하면서 공간점유 문화운동을 진행했던 두리반이나, 성미산 개발을 둘러싸고 전면적으로 공간 투쟁을 시작한 성미산 마을이 있는 곳이 마포이거니와, 여러 인권운동 단체들이 모여들면서 성소수자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망원동 역시 마포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마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이 공동체 운동을 위해 만든 '카페 마레연'은 여전히 실행 중이기는 하지만 가부장제 및 자본주의가 결탁한 주거 공간을 전복하는 하나의 사례로 주목해 볼 만하다. '카페 마레연'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마포구에 사는 LGBTQ(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스처닝)들이 유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는 취지로 모인 '마포 레인보우 유권자 연대(마레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활동의 목표는 "첫째, 마포구에 살고 있는 LGBTQ와 우리의 권리를 지지하고 사회적 변화를 꿈꾸는 이들을 유권자로 조직하는 것, 둘째, 마포구의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정보와 정책을 공유하고 평가하며, LGBTQ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활동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셋째, 유권자로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선거에 투표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마레연에서는 마포구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 뿐 아니라 유권자로서 투표해야 했던 교육감과 시장 후보에 까지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는 운동을 진행³³⁾했고 '35세 미만 1인 가구'의 주택신청 가능면적 규제의 개정을 제안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동성커플의 경우 주택 신청 시 독신가구로 신청해야 하지만, 단독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4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항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누릴 수 없다는 문제제기였고, 해당 규제 철폐

33) 질의와 응답내용은 마포 레인보우 유권자 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maporainbow.net>

를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마레연은 선거가 끝나자 "동네주민들끼리 얼굴도 보고 가끔 맛난 거 먹으며 수도도 떨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동네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회동 같은 것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카페 마레연'을 구성하고 지역운동, 공동체 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한다. 이 공동체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분들, 살고 싶은 분들,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살지도 일하지도 않지만 마포구에 자주 출연하시는 분들"을 가입 자격으로 하며 "성 정체성 탐구를 하고 있는 분"³⁴들에게까지 그 문이 열려있다.

한국의 가부장제가 공고한 이성애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시민권 및 인권은 이런 가부장제의 판을 뒤엎을 중요한 의제다. 특히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주거정책과 주거 공간 구성은 소수자를 다양한 사회적 배제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성소수자의 시민권 운동이 주거권 운동과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운동을 보면, 탈가부장제적이고 탈자본주의적인 공간으로서 마포를 발견할 수 있다. '장소상실'의 대안 중 하나일 수 있는 '정주와 변주가 동시에 가능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은 이런 현실적인 목소리 내기를 통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4) 카페 마레연 <http://cafe.daum.net/maporainbow2010>

"카페 마레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게시물 중에서.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박예슬, 「소수자가 행복한 마포구를 원합니다」, 『오마이뉴스』 2010.04.27.
손낙구, 「‘손낙구의 부동산 1백대 부자2’ 통계로 보는 100대 집부자」, 『레디앙』,
2008.03.04.
정구학, 「전세난 외면하는 복지 논쟁」, 『한국경제』, 2011.01.30.
카페 마레인 <http://cafe.daum.net/maporainbow2010>
마포 레인보우 유권자 연대 <http://maporainbow.net>

2. 논문과 단행본

- 이정봉, 「빈민의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고시원 거주 도시 빈민층의 사회적 배
제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경향신문특별취재팀, 『어디사세요?』, 사계절, 2010.
고병권, 『추방과 탈주』, 그린비, 2009.
윤택림, 『한국의 모성』, 미래인력연구센터, 2001.
이진경 편저, 『모더니티의 지층들』, 그린비, 2007.
이진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임옥희 편저,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도서출판 여이연, 2004.
전남일, 『한국 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0.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전남일 · 양세화 · 홍형욱, 『한국 주거의 미시사』, 돌베개, 2009.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 이숲, 2009.
조은 · 이정옥 · 조주현,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최병두,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002.
홍성태, 『생태문화도시 서울을 찾아서』, 현실문화연구, 2005.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역,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b, 2009.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 『트랜스크리티크』, 한길사, 2005.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희망의 공간』, 한울아카데미, 2009.
런다 맥도웰, 여성과 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
해』, 도서출판 한울, 2010.
베아트릭스 콜로미니 편저, 강미선 외 역, 『섹슈얼리티와 공간』, 동녘, 2005.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일레인 김 · 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 젠더와 한국의 민주주의』, 삼인,

2001

장하준, 김화정 · 안세민 역,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0.

카야노 도시히토, 김은주 역, 『국가란 무엇인가』, 산논, 2010.

Foucault, Michel, "Of Other Spaces", 1967.

(<http://foucault.info/documents/heteroTopia/foucault.heteroTopia.en.html>)

Abstract

A house, the place of settlement and variation

Sohn, Hee-Jeong

The modernization in Korea has been proceeded in conjunction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pace in the capitalist way as much as in the western modernization. In this process, the space was considered to be empty and neutral, and also something to be objectively manipulated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or by characteristics of planners. As a result, the dwelling spaces in Korea appeared to be a dwelling machine where the capitalist ideology merged with the patriarchy is encapsulated. Individuals have experienced the sentiment of placelessness while being affected by this process as well as actively participating in it. Here, the sentiment of placelessness means the feelings of loss for deeper connection with the meaningful places. However, the placelessness does not only have the negative side. When imaging the possibilities of social change based on the possibilities of open space, the placelessness means the emancipation of the everyday life which seems to be depoliticized. At the same time it also means the possibility of the community beyond the rigid boundaries of individuals. As such possibility, the placelessness is rather a chance for new attachment to the place and new relationship with it than deprivation and abandonment of the place. We need to take it to consideration, however, that both sides of placelessness are based on the materialistic condition which is deprivation of housing rights. Speculating on these issues around the house, this essay takes closer look into the recent Korean films which dramatize the 'homeless-hikikomori couple narrative' and tries to imagine the alternative way to resolve the oppressions around the dwelling space in Korea. (Key-words : Modernization in Korea, modern characteristics of home in Korea, placelessness, patriarchy, heterotopia, homeless, hikikomori, queer community, civil right movement, association)

위 논문은 2011년 4월 9일 제36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획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 4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